

2025

한국언어문화전공 도담도담

우리와 함께 자라나는 한국어문의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 팀 | 이승아 문여진 황다영 김능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송백관 E311호 TEL 041-550-5112 FAX 02-300-3345

지도교수님 인사말

"한국언어문화전공 소식지 『도담도담』
네 번째 발간을 축하합니다."

이희영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커뮤니케이션 팀 지도교수



우리 한국언어문화전공은 지난해에 이어서 『도담도담』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소식지는 우리 전공에서 시행한 행사와 재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 아울러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전공에서는 “학술답사(예산-홍성-태안)”, “언어문화교류회(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파키스탄-베트남-인도네시아)”, “윤동주 문학 행사 참석”, “태국 송클라프린스대학교 실습 파견”, “세종학당 국외 한국어교육 실습(프랑스)”, “한국어교원 인턴 실습”,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 “해외학자 초청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생들은 국어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우리말 가꿈이”,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전공과 관련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이 소식지는 전공 커뮤니케이션팀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고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은 전공 학생회와 협조하면서, 전공의 각종 행사 진행과 촬영 및 유튜브 업로드 등 수많은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전공 누리집에 게시하고,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이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식지가 재학생에게는 전공에서 활동하는 사향을 인지하고 참여하게 하는 동기 부여를, 졸업생에게는 재학 시절을 다시 돌아보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 커뮤니케이션팀 및 소식지 도담도담 담당 교수 이희영 드림.

한국언어문화전공 전공 관련 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 한국어교원자격증 이수표

1. 한국어학

한국어학의이해 / 한국어문법론 / 한국어어문규범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 사회언어학 /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 한국어발음교육론 / 한국어표현교육론 / 한국어어휘교육론 / 한국어문법교육론 / 한국어한자교육론 / 한국어이해교육론 / 한국어교재론 / 한국문화교육론

4. 한국문학

한국문학의이해 / 한국의전통문화 / 한국현대시의이해 / 한국민속학 / 한국현대소설의이해 / 한국고전서사와문화콘텐츠 / 한국문학사 / 한국시가문화의이해 / 현대한국사회

5. 한국어 교육실습

한국어교육실습

※ 취득 필수 학점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1. 한국어학 (6학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4. 한국문학 (6학점)
5. 한국어 교육 실습 (3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수강 자격: 1영역(한국어학)과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을 합하여 아래 제시된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1) 주전공자 및 다전공자: 24학점(8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 2) 부전공 이수자: 12학점(4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 그 외 전공 관련 자격증

KBS 한국어능력시험

- 국가공인 KBS한국어능력시험은 모국어로서의 국어사용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 (공인)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미공인) 4-급, 무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가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은 한국사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
- (심화) 1,2,3급, (기본) 4,5,6급으로 한국사의 학습능력을 인증할 수 있는 시험

한자능력검정시험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에 의해 한자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시험
- (공인민간자격) 특급, 특급II, 1급, 2급, 3급, 3급II
- (비공인민간자격) 4급, 4급II,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

 해오름식


상세	
일시	2025.03.12. 17:00
내용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여 인사 및 개강 맞이

 제21차 졸업생 초청 취업 특강

상세	
일시	2025.04.10. 17:00-18:00
강연자	한국언어문화전공 16학번 조수영 선배님
사회자	한국언어문화전공 22학번 박보미
내용	CS(영업관리) 직무에 대한 정보 제공

 제22차 졸업생 초청 취업 특강

상세	
일시	2025.05.13. 17:00-18:30
강연자	한국언어문화전공 05학번 정영준 선배님
사회자	한국언어문화전공 24학번 김능희
내용	기업 홍보 부서가 하는 일

 2025 학술답사

상세	
일시	2025.05.16.-2025.05.17. (1박 2일)
내용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술답사
장소	수덕사 및 한용운 생가

 제23차 졸업생 초청 취업 특강

상세	
일시	2025.05.21. 16:00-18:00
강연자	한국언어문화전공 07학번 김호성 선배님
사회자	한국언어문화전공 김지윤 교수님
내용	등단 시인, 편집장으로서 문학 현장에 대한 정보 제공

 제9차 해외학자 초청 특강

상세	
일시	2025.05.22. 17:00-18:30
내용	[피트리 무티아 교수]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의 성장 가능성

 월드 빌리지

상세	
일시	2025.05.27.-2025.05.28.
내용	글로벌인문학부대학의 학과가 각자 전공 별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사

 노벨상을 읽다

상세	
일시	2025.06.17. 17:00-19:00
내용	노벨상 수상 작가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대회

 운동주의 밤

상세	
일시	2025.09.04. 17:00
내용	운동주 시 낭송 및 발표 행사

 2025 언어문화교류회 OT

상세	
일시	2025.09.20. KST 16:00
사회자	한국언어문화전공 23학번 이승아
장소	상명대학교-해외대학교 온라인 언어문화 교류회 오리엔테이션

 제24차 졸업생 초청 취업 특강

상세	
일시	2025.10.02. 17:00-18:30
강연자	한국언어문화전공 19학번 이승주 선배님
사회자	한국언어문화전공 24학번 김능희
내용	취업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등의 정보 제공

 제25차 졸업생 초청 취업 특강

상세	
일시	2025.11.13. 17:00-18:30
강연자	한국언어문화전공 11학번 홍성혜 선배님
사회자	한국언어문화전공 23학번 이승아
내용	예능 방송 작가가 하는 일

 2025 학술제

상세	
일시	2025.11.25. 16:30
내용	한 해 동안의 학과 행사와 활동을 보고 및 정리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언어문화전공 20학번 진민우입니다.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2025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 실습 사업]에 참여하여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프랑스 캠페르 세종학당으로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한 달간 머무르며 실제 외국인 학습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학당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와 업무에 참여했으며, 예비교원으로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 제가 경험하고 느끼며 배운 점들을 정리해 전공 소식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 세종학당 예비 교원 실습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학부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며 한국어가 해외 학습자들에게는 어떤 언어로 받아들여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교재와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항상 마음에 두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당장의 흥미와 관심을 넘어 정말 한국어 교원이라는 진로가 나의 적성에 맞는 길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선택한 해외 학습자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지, 또 현지 교육 환경 속에서 한국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세종학당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 실습이라고 생각했고, 졸업을 앞둔 4학년에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이번 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예비 교원으로서 진행해본 실제 수업은 어땠나요?

현지에서 제가 진행한 한국어 수업은 그동안 제가 배우고 공부해 온 수업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는데, 실습에 참여하기 전까지 실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던 만큼, 현지 수업은 저에게 더욱 낯설고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시험이나 성취의 대상이라기보다 스스로 선택해 배우는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만큼 수업에서도 문법의 정확성뿐 아니라 해당 표현이 실제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의미와 사용 맥락을 함께 전달해야 했고, 이는 예비교원으로서 저에게 한국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준비해 실제로 진행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은 제게 큰 도전이자 배움의 시간이었는데, 완벽히 준비한 교안이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와 풀이 속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까지 매 순간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했고, 준비한 만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당장님과 지도 교원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 한마디는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안을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한 뒤 이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여 수업을 진행해 왔다면, 현지 수업을 통해서는 수업의 흐름과 학습자 반응에 맞추어 설명의 순서를 조정하고, 예시를 보완하거나 내용을 과감히 생략하는 유연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수정하고 보완하던 어느 순간, ‘아,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전율 같은 감각이 잠시 지나갔는데, 이 경험은 예비교원으로서 제가 한 단계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준 소중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4.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실습 기간 동안 여러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서도 첫 수업의 기억은 지금도 눈앞에 선 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해외에서 맞이한 첫 생일이기도 했던 10월 8일, 낯선 교실에서 처음 외국인 학습자들을 마주했던 순간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긴장으로 가득했던 첫 수업이 끝난 뒤, 어떻게 알았는지 학습자들이 서툰 한국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짧은 순간이 낯설게만 느껴졌던 공간을 순식간에 따뜻하게 채워 주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넘어, 교실이라는 공간이 언어를 통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해 준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그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수업이 단어와 문장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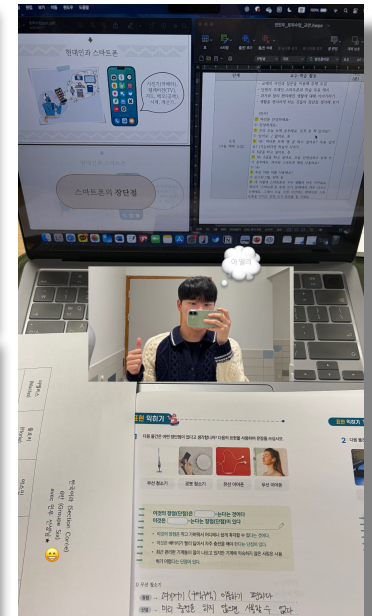
5. 활동 소감과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종학당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 실습은 학부 과정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실제 현장과 연결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특히 실습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가 수업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교안을 거의 암기한 뒤 '호트러 지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수업이란 살아 있는 흐름이며 학습자의 반응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해 보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이해까지 제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프랑스에서의 한 달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교실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 왔던 많은 것들을 다시 질문해 보게 만들었고, 한국어 교원으로서 제 모습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습자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교육은 결국 서로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 내용들이 아직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에 직접 서 보는 경험을 꼭 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실제 수업과 마주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부터 실습 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 한국언어문화전공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배려와 따뜻한 격려 덕분에 낯선 환경 속에서도 보다 자신 있게 실습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쌓은 경험이 후배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전공에도 작은 긍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언어문화전공 20학번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공다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2025년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 프랑스-캠페르 학당에 배정되어 예비교원으로 실습을 한달 간 다녀왔습니다.

2. 세종학당 예비 교원 실습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세종학당 재단에서 예비교원 국외실습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전공이나 복수 전공 없이 전공 심화 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진로가 명확하지 않고,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많은 고민과 방향을 할 때라 졸업하기 전에 국외 실습에 참여하여 진로 방향성을 잡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예비 교원으로서 진행해본 실제 수업은 어떠셨나요?

각 나라와 학당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프랑스- 캠페르 학당은 학생들이 정말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는데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비교원들과 상의 끝에 제가 초급 학습자 반을 맡았는데 엄청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아예 할 줄 몰라서 영어로 대신해서 수업했는데, 영어가 능숙하면 좋겠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쉬운 영어 표현과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면 수업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수업 참여도가 높고, 호기심이 많아서 같이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를 할 줄 아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수업 보조를 하면서 맡은 한 학생이 있었는데, 수업에 항상 지각하고,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처음으로 수업에 지각하지 않아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수업을 듣고, 몰라도 자신감 있게 질문하는 모습이 웃기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학생과는 한국에 온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업 마지막 날에 제가 맡았던 학생들이 직접 쓴 편지들과 프랑스 간식들을 선물해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편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볼 때면 여전히 힘을 얻곤 합니다.

5. 활동 소감과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종학당 예비교원 국외실습은 여러모로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려 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온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정과 한국을 사랑하던 그 모습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후배들에게 자신의 전공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지원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면 일단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자격이 안되는 것 같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보면 점점 기회는 줄어들더라고요. 기회를 잡아야 다음이 있고, 무엇이든 남는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생 인터뷰

아주대 국제교육센터 한국어 강사, 18학번 김승현 선배님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명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학과 18학번 김승현입니다.
현재 상명대학교를 졸업하여 아주대학교 국제교육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아주대학교 국제교육센터 한국어 강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 국제교육센터는 대학 입학의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주민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국제교육센터 소속 강사로 한국어 어휘, 문법 및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 목적의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과 진로 설정에 대한 상담도 병행해야 합니다.

3. 한국어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진부하지만 저는 학창 시절부터 국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문법 현상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국어 문법을 질문할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진로 희망란에는 언제나 국어 교사가 1순위로 적혀 있었어요. 물론 한국인 학생 대상의 교사를 꿈꿨지요. 한국어언어문화학과에 진학하고 나서야 외국인에게도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문법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문장성분이니 품사니 하는 어려운 용어는 뒤로 하고, 그 문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려줘야 해요. 그걸 설명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재미였습니다. 다행히 학과 과정도 잘 맞아서, 그대로 한국어 강사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4. 한국어 강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의 다양한 교육론 수업들과 그 과제 활동이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강사가 되면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 목소리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듣는 입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교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긴장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과에서는 교육론 시간에 교안도 작성해 보고, 직접 자료도 만들어 보고, 앞에 나가 수업 진행도 해 보잖아요. 그게 모두 밑거름이 되어 실제 교육 현장에 서게 되었을 때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사실 아직 엄청난 보람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와 한 학기를 마친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 배워 대학교에 입학했다거나,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뿌듯하더라고요. 졸업한 학생이 찾아올 때도 그렇고요. 한글 자모도 못 써 영어로 질문하던 학생이 저와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도 감동이었습니다. 날마다 소소하게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6. 한국어 강사로서 보내는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수업 시작 전까지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은 하루에 4시간씩 해요.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다음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수업 활동도 미리 구상해 봅니다.

7. 한국어 강사에게 가장 필요한 업무 역량은 무엇인가요?

한국어 강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숫기와 불임성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해 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한국어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 학생들과 잘 지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또 학생들의 연령대가 낮은 편이라서 수업 태도가 나쁜 학생도 많은데, 서로 기본 상하지 않게 지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쉽고요. 국어 지식은 스스로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데, 학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8. 대학 시절에 꼭 경험해 보길 추천하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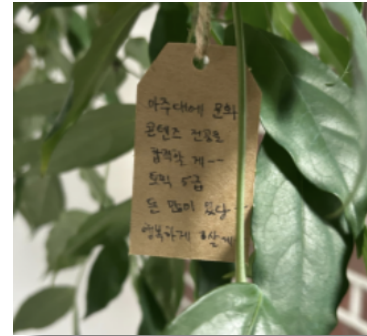
다양한 실습 경험을 추천드립니다. 학과 전공 수업은 되도록 빠짐없이 듣기를 추천하고, 대외 활동이라면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국외 실습 프로그램을 가장 추천해요.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 최대한 빨리 경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9. 어떤 사람에게 한국어 강사를 추천하시나요?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100번씩 해도 모자라거든요. 문화체험 가는 날에는 가는 길을 설명하다가 진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한 마디도 안 하고 쉽니다. 학생들과 말을 너무 많이 해서요.

10.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졸업, 취업으로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공은 진로 설계가 비교적 쉬운 편이니까 고민이 많다면 일단 학교를 열심히 다녀 보세요. 한국어 강사가 되어 보니까 우리 학과의 존재가 참 감사더라고요. 또 언제나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아주대학교 국제교육센터
<https://cie.ajou.ac.kr/cie/community/material.do>

글가웃

글가웃이란?

책을 좋아하는 학우들이 모여 독서토론을 통해 인문학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소모임입니다. 단편소설, 장편소설, 영화를 감상한 뒤 사전에 정한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해 한 학기 동안 평균 4편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글가웃의 목표는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비판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문화마을

문화마을이란?

2005년부터 역사를 이어온 답사 친목 소모임으로, 문화 답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 유적지부터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공간을 답사하며 풍성한 문화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대외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해울

해울이란?

글을 좋아하는 학우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는 창작 중심 소모임입니다. 산문, 운문, 수필 등 장르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쓰고,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글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울이라는 이름처럼, 잔잔하지만 깊게 파문을 남기는 글을 만들고자 모였습니다.

한자소굴

한자소굴이란?

이름 그대로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한자와 사자성어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소모임입니다. 사자소학이라는 교재에 나와있는 한자를 따라 쓰고 이희영 교수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사자소학이란 우리가 반드시 배워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나 선인들의 생활 철학이 담긴 책으로, 한자 학습뿐만 아니라 교양도 함께 쌓으실 수 있습니다.

▶ 전공 유튜브 채널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TV

@TV-jc1st · 구독자 81명 · 동영상 67개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한국언어문화전공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학과 행사나 선배님의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전공 유튜브 채널

📷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



mutbyeol_smu 팔로우 +8 ...

게시물 8 팔로워 45 팔로우 1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뭇별국문**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34대 학생회 뭇별국문 KR

다양한 학과 소식을 알 수 있는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

